

클럽의 대를 잇는 어머니와 아들

서울새신라 창립회원 최명주 전 회장
어머니 뒤이어 가입한 이원우 회원



1995년 서울 새신라로타리클럽 창립회원으로서 입회해 근래까지 활동해 온 동신시스템즈 최명주 전 회장. 건강상 주회 참석이 어려워 빈자리를 아들인 이원우 (주) 디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가 2015년부터 이어받았다. 지난해에는 지구대회 우정의 집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클럽과 지구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세대와 미 USC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공항이나 공공기관, 군부대의 대테러 방호시스템인 로드블록, 로드 볼라드 등을 제조 시공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차량하부 검색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GS인증을 받았고, 로드블록은 우리나라 업체로는 처음으로 미 국방성 충돌테스트를 통과했다.



미소의 나라, 스리랑카에 가다

부부 로타리안이 함께하는 '예술'과 '봉사'

글. 지구송리더. 주세페김 & 구미꼬김
(서울강북-랑코리아 위성클럽)



라빈드란 RI 전 회장(2015-16)으로부터 몇 달 전, 그의 조국인 스리랑카에 와달라는 초대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스리랑카의 콜롬보로타리회장 취임식에서 저희 부부 듀오아임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그리고 서울국제대회에서 랑코리아위성클럽과 보여주었던 인문학적인 공연을 스리랑카의 로타리안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는 기대감이 표명되어 있었습니다.

7월 6일 저희 부부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도착하였고 1929년에 창립된 전통 있는 콜롬보로타리클럽의 89대 소메스와란 회장 취임식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호텔에 모인 약 400여명의 내빈과 로타리안들이 영어로 취임식이 진행하였고 만찬 중간에 1시간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시차로 인하여 좌절을 넘긴 시간이라 목소리가 무거웠지만 로타리안들의 환대와 스리랑카 고유의 온화한 미소가 피곤을 잊게 하였습니다.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스리랑카는 18세기 말부터 영국 식민지로 지내다 독립하였고 한때 국명을 실론(Ceylon)에서 스리랑카공화국으로 바꾸고 영국연방에서 완전 독립한 나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스리랑카는 남방불교의 중심지이면서 실론은 차의 세계적인 산지로 유명하지요.

로타리의 특별한 인연으로 라빈드란 회장은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두 아이들까지 초대하여 1주일간 스리랑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라빈드란 회장의 산장에 가족이 함께 머문 시간은 마치 먼 이상향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도승이 된 느낌이었었고 스리랑카의 잔잔한 미소와 여유로움을 우리 가족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